

## 부러움 : 한국의 “무해한 선망”<sup>1)</sup>

차 운 아\*  
중앙대학교

이 연구는 상향 사회비교의 결과로 초래될 수 있는 정서의 하나로서 한국 문화에서 독특하게 나타나는 부러움을 조명하였다. 구체적으로 부러움은 상향 사회비교 대상에 대한 적의를 내포하는 시샘이나 질투와는 달리 한국 사회에서 긍정적으로 인식되는 친숙한 정서이지만 궁극적으로 주관적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더 나아가 상향 사회비교를 피할 수 없는 한국 사회에서 부러움은 사회비교 대상에 대한 사회적 거리를 좁히고 조화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발달된 정서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서양문화권의 정서 연구에서 배제되었던 “무해한 선망(benign envy)”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환기하고, 한국인의 정서적 삶 전반에 있어서 부러움이 가지는 역할과 의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역설하고자 한다.

**주요어 :** 정서, 부러움, 사회비교, 문화, 주관적 안녕감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2009)은 ‘부럽다’를 ‘남의 좋은 일이나 물건을 보고 자기도 그런 일을 이루거나 그런 물건을 가졌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이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Kant(1797/1996)는 선망(envy)이란 우리 자신의 안녕이 다른 사람의 안녕에 의해 빛을 잃게 되는 것을 꺼려하는 마음이며 이러한 감정을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우리 자신의 안녕이 가지는 내재적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하여 어떠한지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적하여 선망의 경험에서 사회비교가 갖는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부러움은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나의 상황을 비교함으로써 발

\* 교신저자 : 차운아, (156-756)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221번지, 중앙대학교 경영대학, 전화 : 02) 820-5554,  
E-mail : ocha@cau.ac.kr

1) 영어의 ‘envy’는 (1) 부러워하다, (2) 시기하다, 질투하라는 의미를 모두 갖고 있으나, 서양문화권에서 철학적인 관심을 받았던 것은 남을 ‘미워하고 깎아내리려는’ 감정을 내포하고 있는 (2)의 뜻에 가깝다. 이 연구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것처럼 ‘부러움’은 시기와 질투와 구분될 수 있는 정서이나, 정확히 부러움에 해당하는 영어 용어가 없고 이에 대한 연구도 부족한 상황이므로 영어의 ‘envy’를 ‘부러움’에 가장 근접한 개념으로서 연결해 살펴보고자 하며, ‘envy’를 ‘선망(羨望)’으로 번역하여 ‘부러워하다’와 ‘시기하다’의 뜻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더불어 기존 정서 연구에서는 선망의 유형을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의 유무에 따라 구분했으며(용어 구분에 대한 설명은 이 논문 p.173 참조), “무해한 선망”은 이 중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을 내포하지 않는 ‘benign envy’를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한국의 부러움이 기존 연구의 구분에 의한 “무해한 선망” 범주에 적합한지, 그 속성이 명칭처럼 ‘무해’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에서 다시 확인하고자 한다.

생하는 사회비교의 정서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상향 사회비교 상황, 즉 갖고 싶으나 내게 없는 좋은 물건을 소유하거나 내게는 아직 벌어지지 않은 긍정적인 사건을 경험하는 누군가를 발견하는 상황에서 경험하는 정서로 이해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어떤 사람 혹은 집단에 대해 '부러움'을 느끼거나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드문 일이 아니다. 검색 엔진 구글(Google)에서 2008년도 한 해동안 '부러움'으로 검색되는 한글 뉴스 기사는 7,110건<sup>2)</sup>으로, 누군가와 의 보기 드문 친분이나 애정을 드러낸 유명인, 두터운 전력층을 지닌 경쟁 스포츠팀, 쉽지 않은 성공을 이룬 기업체, 그리고 얻기 어려운 강대국과 동맹관계를 확인한 국가에 이르기까지, 어떤 사람, 조직, 기업, 국가가 우리가 갖거나 성취하지 못한 바람직한 속성이나 대상, 성과로 인해 '부러움을 샀다'는 내용의 기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누군가를 부러워하거나 때로 직접 그 사람에게 '부럽다'고 말해 주는 것은 일상적 경험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한국 사회에서 '부러움'의 경험과 '부럽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친숙하고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러움은 상대적으로 정서연구의 대상으로서 조명을 받지 못했다. 이것은 초기 정서연구들이 정서의 개인내적(intrapersonal) 측면 즉, 한 개인이 마주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개인 내부에서 벌어지는 정서적 반응의 결정요인과 특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개인내 기능을 중시하는 기존 연구자들의 관점에서 어떤 정서가 개별 정서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진화론적 정서 이론가들이 중시하는 특정 정서의 다른 종(species)에 대한 연속성(continuity)을 가져야 하며, 분노 혹은 역겨움처럼 생존과 직결되는 반응을 하기 위한 생물학적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고 이러한 기준에서 개별 정서로서 인정을 받았던 정서로는 분노(anger), 역겨움(disgust), 슬픔(distress/sadness), 기쁨(enjoyment/happiness), 공포(fear), 놀람(surprise), 그리고 경멸(contempt) 정도가 있을 뿐이다. 이에 비해 특정 사회문화적 요구에 의해 사회화 과정을 통해 발달되어 상대적으로 복잡한 인지과정을 내포하는 대인관계적

(interpersonal) 기능이 강조되는 정서들은 이러한 개별 정서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차적(primary) 정서'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간과되었다. 선망이나 부러움 역시 이에 속하는 경우로서, 위에 언급된 연구들 중 Lazarus(1991)만이 선망을 개별 정서로서 언급했을 뿐이다.

그렇다면 정서로서의 부러움은 왜 특별하며 한국문화에서 이 정서에 주목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로 (1) 서양문화권과 비교했을 때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문화권에서 특히 사회비교가 중요하게 부각된다는 점과 (2) 사회비교와 관련된 정서 중 '부러움'이 한국 문화에서 독특하게 부각되는 정서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 사회비교의 문화차와 부러움의 사회적 기능

한국 문화에서 부러움이 갖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비교 성향에서의 문화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양과 동아시아의 문화에 대한 비교 문화연구는 동아시아 사람들이 서양 문화권 사람들에 비해 사회비교에 더 많이 관여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상향 사회비교를 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Chung과 Mallery(1999)는 미국인과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문화연구에서 집합주의 점수가 높을수록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는 욕구가 높아졌으며, 높은 집합주의 점수는 상향 사회비교의 증가와 하향 사회비교의 감소와 연관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 유럽계 캐나다인에 비해 아시아계 캐나다인들은 더 많은 사회비교를 추구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상향 사회비교를 추구하는 성향을 가짐을 보여주었다(White & Lehman, 2005).

White와 Lehman(2005)은 이러한 사회비교 성향에서의 문화차가 집합주의적 가치와 상호의존적인 자아개념으로 특징지어지는 동양문화권 사람들의 경우, 개인주의적 가치와 독립적인 자아개념으로 특징지어지는 서양문화권 사람들에 비해,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그들과의 조화, 집단의 목표를 중시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예: Heine, Lehman, Markus, & Kitayama, 1999; Markus & Kitayama, 1991; Singelis, 1994; Triandis, 1989). 구체적으로, 동양문화권 사람들은 서양문화권 사람들에 비해 (1) 주변의 사회적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2)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사회적 맥락을 통하여 자아를 평가하며 (3) 다른

2) 2008년 한 해 '질투'로 검색되는 기사는 5,170건, '시샘'로 검색되는 기사는 704건이었다.

사람과의 결속과 연대 추구하고, 마지막으로 (4) 집단의 이상에 맞추어 자아개선을 추구하려는 동기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회비교 정보를 더 모색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는 대인관계 지향, 즉 개인이 다른 사람의 행동 방식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에 기반하여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정도가 사회비교에 대한 관심과 상관성이 있음을 보여준 Gibbons와 Buunk(1999)의 연구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동양 사람들이 특히 상향 사회비교 정보를 더 추구하는 경향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기대와 규범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좀 더 향상시켜야 한다는 자기향상(self-improvement)의 동기가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었다. 사회비교 정보 추구가 실패 경험 후에 더 많이 일어나며(연구 2), 특히 실패 경험 후 자기향상의 기회가 뚜렷하게 부각되었을 경우 사회비교가 더 일어난다는 연구 결과(연구 3)가 이를 잘 뒷받침해 주며, 아시아계 캐나다인들이 상향 사회비교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상향 사회비교가 자기향상의 목표를 추구하는 것을 허용하기 때문일 것이라는 설명에 힘을 실어준다(White & Lehman, 2005).

같은 맥락에서 한국인은 사회비교 정보에 민감하며 특히 자기향상의 동기에 의한 상향 사회비교에 관여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한국인의 사회비교 대상 선택에 관한 한덕웅 등의 연구는 지속적인 상향비교 편향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장은영과 한덕웅(1999)의 연구에서 상향비교, 유사비교, 및 하향비교 대상의 선택비율은 각각 41%, 42%, 17%로 나타났으며, 한덕웅(1999)의 연구에서는 49%, 32%, 19%로 나타났다.

이처럼 선망이 특히 상향 사회비교 상황에서 경험될 수 있는 정서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집합주의적이며 상호의존적인 동양 문화권에서 발견되는 상향 사회비교 정보에 대한 민감성과 일상적인 상향 사회비교 경험은 이들 문화권에서 선망의 정서 경험이 빈번할 것이며 이 정서가 중요한 문화적 의미를 가지게 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그리고 특히 한국 문화에 나타나는 ‘부러움’의 존재는 기존의 선망개념에서 간과되었던 측면에 새로운 관심을 환기한다.

#### 선망(Envy)과 한국 문화의 부러움

선망( envy)이란 인간의 가장 보편적이며 뿌리 깊게 자

리 잡고 있는 감정 중 하나(Russell, 1930/1958)로서 선망을 느끼는 것은 매우 보편적이며 범문화적인 현상으로 여겨진다(Foster, 1972; Schoeck, 1969/1987). 일상적 언어생활에서 한국어의 부러움이나 시샘, 질투는 모두 영어의 ‘선망( envy)’으로 폭넓게 번역되고 그 역도 성립하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실제로 서구권에서의 선망은 좀 더 부정적인 경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선망의 경험에 대해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다른 사람의 행운에 의해 야기되는 고통으로 정의하였고, 기독교 문화권에서 선망( 시기)은 탐식, 탐욕, 나태, 음란, 교만, 그리고 분노와 함께 7대 죄악 중의 한 가지로 경계해야 할 정서로 여겨져 왔다.

이는 기존 연구들이 선망을 정의한 방식과 연구의 초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Smith와 Kim(2007)은 상대방에 대한 적대적 의도의 포함여부에 따라 선망은 적개심을 포함하는 “악의적 선망(malicious envy)”과 적개심을 내포하지 않는 “무해한 선망(benign envy)”(Rawls, 1971/1999) 혹은 “비악의적 선망(nonmalicious envy)”(Parrott, 1991)의 두 가지 상반된 의미로 구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이 중 “핵심 선망( envy proper)”이라 일컬을 수 있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적대적 의도를 내포하는 전자이며, 이러한 악의적 선망이야말로 선망 연구의 주요 초점이라고 단정 짓고 있다. 이러한 시각을 반영하듯, 기존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선망이란 ‘사람들이 열망하는 것(물건, 사회적 지위, 속성, 혹은 삶의 질 등)을 다른 사람 혹은 집단이 향유하고 있음을 인식함에서 비롯되는, 열등감(inferiority), 적대감(hostility), 그리고 분개(resentment)로 특징지어지는 불쾌하며, 고통스럽기까지 한 정서’라는 데 동의하고 있다(Parrott, 1991; Parrott & Smith, 1993; Smith & Kim, 2007). 이는 이들 연구들이 선망을 ‘자기보다 잘되거나 나은 사람을 공연히 미워하고 싫어함’(표준국어대사전, 2009)을 의미하는 시기 혹은 시샘에 해당하는 부정적인 정서로 한정시키려 하였음을 보여준다.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설적이며 모방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무해한 선망은 핵심 선망보다 일반적이긴 하지만 ‘악의(ill will)’라고 하는 핵심 정서 요소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애정과 존경으로 무해처리한 선망( envy that is sanitized by affection and respect)”(Ashwin, 2005, Chapter 2)이며, 엄밀히 말하면 찬탄(admiration)에 가까운 것으로(Foster,

1972; Silver & Sabini, 1978) 선망의 연구에서는 배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Smith & Kim, 2007). 실제로 많은 연구들은 선망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연구하는 데 편향돼 있었다. 이들 연구는 선망이 가지고 있는 불쾌한 속성과 선망이 내포하는 적대적 의도 또는 상대방이 갖는 우위를 탐하거나 상대방을 끌어내려 동등한 지위를 회복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초래하거나(Beckman, Formby, Smith, & Zheng, 2002; Hoelzl & Loewenstein, 2005), 협력이나 집단의 수행을 저해하는 과정(Duffy & Shaw, 2000; Parks, Rumble, & Posey, 2002; Vecchio, 2005)을 조명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 문화의 ‘부러움’의 존재는 주목할 만하다. ‘남의 좋은 일이나 물건을 보고 자기도 그런 일을 이루거나 그런 물건을 가졌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이라는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부러움은 악의적 선망의 전제조건인 다른 사람에 대한 적개심 혹은 악의를 내포하지 않는 무해한 선망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선망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대부분의 서구 문화권에서 악의적 선망과 무해한 선망을 개념적으로 구분하는 별개의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 것과는 대조되는 부분이다.<sup>3)</sup> 이와 더불어 한국 사회에서 부러움은 시샘이나 시기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감정으로, 많은 경우 상향 사회비교 상황에서 상대에게 ‘부럽다’고 말하는 것이 허용되고 또 적극적인 의미로 부러움의 표시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한국 문화에 무해한 선망에 해당하는 정서 용어가 존재하며 한국인의 정서적 삶에 부러움이 뚜렷하게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은 한국 문화에서 이 정서가 수행하는 독특한 사회적 기능이 있기 때문일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사회의 합의된 기준에 자신을 맞추고 집단이 가진 기대

3) Van de Ven, Zeelenberg와 Pieters(in press)는 드물지만 악의적 선망과 무해한 선망이 별개의 개념으로 존재하는 국가들이 일부 존재함을 언급했다. 네덜란드의 “benijden”과 “afgunst”, 독일의 “beniden”과 “misgönnen”, 폴란드의 “zazdrość”와 “zawiść”, 그리고 태국의 “it-chää”와 “rit-yaa”(음성표기)가 각각 무해한 선망과 악의적 선망의 개념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예이다. 이 저자들 역시 두 개념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영미권에서 주로 선망 연구가 이루어짐으로써 무해한 선망이 상대적으로 간과되었음을 언급하였으며, 두 정서 단어의 분리된 존재가 두 정서경험의 질적인 차이를 시사하는 것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다.

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는 동양문화권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한국인 역시 상향 사회비교 정보를 추구하고 다양한 상향 사회비교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러한 빈번한 상향 사회비교 상황의 경험은 내부적으로도 부정적 자기상을 부각시켜 자존감에 손상을 주는 것도 문제지만, 악의적 선망이 그러하듯 외부적으로는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에 대한 적대감을 증진시켜 구성원과의 화합을 해침으로써 조화로운 관계를 증진하는 해당 문화의 핵심 목표에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결국 사회적 관계와 구성원 간의 조화가 중시되는 문화의 요구에 의해 사회비교, 그 중에서도 상향 사회비교 추구 경향이 강화되지만, 역으로 이로 인해 이 문화의 중요 목표인 구성원 간의 조화를 위협하게 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이유로 구성원 간의 조화가 중시되는 문화에서는 상향 사회비교가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할 필요가 발생하는데, 이 연구는 이러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부러움, 혹은 무해한 선망임을 제안하고자 한다. 부러움과 시샘 모두 자신이 가지지 못한 긍정적인 사건을 경험하거나 나보다 뛰어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느끼는 정서이지만, 시샘이 대상에 대해 적개심을 표출하여 상향 사회비교 대상과 자신을 분리하는 데 비해, 부러움은 상향 사회비교 대상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소망으로 대상과의 관계를 포괄함으로써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는 수단을 제공할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시샘 혹은 악의적 선망은 나와 가깝지 않거나 가까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상향 비교대상에 대해 느끼는 분노의 정서 혹은 거리를 두고 멀어지려는 회피의 정서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와는 대조적으로 부러움 혹은 무해한 선망은 내게 가깝거나 가깝게 지내고 싶은 상향 비교대상에 대해 느끼는 연합의 정서 혹은 가깝게 지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거리를 좁히고 다가가려고 하는 접근의 정서로 개념화해 분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요약컨대, 부러움은 구성원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동양 문화권의 독특한 문화적 요구 속에서 발생하는 사회비교 상황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사회적 관계를 조율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수단으로서 한국 문화에서 독특하게 자리잡은 정서로 생각할 수 있다.

#### 한국어 정서 단어 목록에 나타난 부러움

그렇다면 한국 문화에서 부러움을 비롯하여 선망이나 질투와 같이 상향 사회비교와 관련된 정서로는 어떤 것들이 존재하며, 이들이 ‘정서’로서 한국인에게 인식되고 있는지, 한국인의 삶에 얼마나 반영되어 있을까? 이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언어에 표상된 선망 관련 정서 단어를 살펴 보는 것이다. 일부 정서연구자들이 방대한 한국어 어휘 자료를 바탕으로 대표 정서 단어 목록의 정리를 시도하였는데, 대표적 연구로는 안신희, 이해승과 권오식(1993), 한덕웅과 강혜자(2000), 그리고 박인조와 민경환(2005)의 연구가 있다.

먼저, 안신희 등(1993)은 국어사전을 이용하여 성격이나 정서를 표현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단어 혹은 구 3,582개를 추출한 후, 참가자의 85% 이상이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판단한 단어들로 총 224개의 정서단어의 목록을 작성하였고 이를 다시 유사성 평정 기준을 통해 총 96개로 축약하였다. 이 96개 대표 정서 단어 중 선망이나 질투와 관련된 단어로는 ‘부럽다’, ‘샘내다’, ‘질투하다’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 96개 단어를 다시 유사성 기준으로 22개의 범주로 압축한 후 50명의 학생들에게 각 범주를 대표하는 단어를 선택하게 하여 가장 높은 빈도를 얻은 단어들로 만든 22개 대표 단어에는 최종적으로 ‘부럽다’가 포함되었다.

한덕웅과 강혜자(2000)는 안신희 등(1993)의 정서 목록이 국어사전에 전적으로 의존했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어대사전 수록 어휘(1254개)는 물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인관계에서 경험하는 정서에 대한 자유응답을 통한 정서용어(570개), 그리고 국내외 선행 연구들에서 사용된 정서용어들을 수집 추가하여 만든 총 1515개의 용어를 기반으로 정서 단어 목록 작성을 시도하였다. 유사 의미의 단어를 추려내고 유학사상에서 4단 7정 정서로 중요하게 다루는 정서를 추가하여 만든 이 총 834개의 목록에는 정서적절성 평정의 순서로 ‘부럽다’(정서적절성 : 6.28; 정서경험빈도 : 4.48), ‘샘내다’(정서적절성 : 6.05; 정서경험빈도 : 3.88), ‘질투하다’(정서적절성 : 5.88; 정서경험빈도 : 3.86), ‘시기하다’(정서적절성 : 5.01; 정서경험

빈도 : 3.26), ‘시샘하다’(정서적절성 : 4.85; 정서경험빈도 : 3.36), 그리고 ‘선망하다’(정서적절성 : 3.54; 정서경험빈도 : 4.10)<sup>4)</sup>가 포함되었다.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정서 단어 목록 작성 시도로는 박인조와 민경환(2005)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에서 제작한 ‘현대 한국어의 어휘 빈도’ 자료집(서상규, 1998)을 기초자료로 사용한 것으로 이 자료집의 기반이 된 말뭉치 자료는 1960년대-1990년대까지의 시대별 문헌 자료에 나타난 어휘는 물론, 신문, 잡지, 소설 및 수필, 취미 및 교양, 수기 및 전기 등 출판물에 나타난 문어(글말) 자료와 대화, 강연, 상담, DJ 방송, 희곡대본, 토론, 회의 등에서 나타나는 구어(입말) 자료 등 다양한 매체 및 상황에 반영된 방대한 어휘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박인조와 민경환(2005)의 연구 1에서는 단계적 여과 과정을 통해 총 434개의 최종 감정단어 목록을 작성하였는데 이 목록에는 ‘남부럽다’, ‘부럽다’, ‘시기하다’, ‘샘내다’, ‘질투하다’가 포함되어 있었다. 연구 2에서는 정서의 차원 탐색을 위해 이를 다시 정서의 원형성(prototypicality)과 친숙성(familiarity) 평정의 평균이 모두 4.0 이상인 총 225개의 목록으로 좁힌 후, 전문 연구원 3명에 의한 유사성 분류에서 나타난 총 87범주에서 각 범주별로 원형성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것을 선택해 87개 대표 정서 단어 목록을 제시하였는데, 이 목록에 최종적으로 포함된 상향 사회비교 관련 정서 어휘로는 ‘부럽다’와 ‘샘내다’가 있었다.

이 87개 대표 정서 단어 목록에는 각 정서 단어에 해당하는 원형성, 친숙성, 쾌-불쾌, 활성화 점수가 함께 보고되어 있는데, 이를 활용하여 ‘부럽다’와 ‘샘내다’ 두 정서 단어의 차이를 간접적으로 비교해 보면, 우선 각 단어가 정서단어로서 얼마나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보는 원형성의 경우 ‘부럽다’(5.23)는 18위, ‘샘내다’(4.62)는 ‘심만하다’, ‘실망하다’를 이어 56위를 차지했다. 또 일반인의 관점에서 단어들이 얼마나 친숙한지를 측정하는 친숙성의 경우, ‘부럽다’(5.77)는 ‘후회하다’, ‘우울하다’의 뒤를 이어 18위로 상대적으로 친숙한 단어로 보고된 반

4) 정서적절성 및 정서경험빈도는 각각 “매우 부적절하다(1)”, “매우 적절하다(7)”와 “전혀 경험하지 않는다(1)”, “매우 자주 경험한다(7)”의 7점 척도 상에서 평정된 값이다(한덕웅, 강혜자, 2000).

면, ‘쌘내다’(4.92)는 ‘배신감’, ‘역겹다’에 이어 71위로 상대적으로 친숙하지 않은 단어로 평가되었다. 이외에 쾌-불쾌 차원의 경우, 부러움(4.00)은 목록의 30번째를 차지하여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의 경계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쌘내다’(2.75)는 ‘낯뜨겁다’, ‘부끄럽다’에 이어 42위로서 불쾌의 영역에 속하는 정서임을 알 수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한국어 정서 단어 목록과 정서 차원을 탐색한 선행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부럽다’, ‘쌘내다’, ‘질투하다’와 같은 사회비교 관련 정서가 한국인의 정서적 삶과 문화에 지속적으로 반영되어 왔으며 한국의 말글에 잘 표상되어 있는 개념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 중에서도 ‘부럽다’는 특히 안신호 등(1993)과 박인조와 민경환(2005)의 연구에서 각각 여러 단계를 거쳐 압축한 22개 그리고 87개의 최종 대표 정서 목록에서 지속적으로 발견되었다. 이는 부러움이 한국인의 정서 경험을 대표하는 정서로서의 중요성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하며, 부러움이 정서로서의 원형성, 친숙성, 유사성, 그리고 쾌-불쾌에 있어서 시샘이나 질투와는 구분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 연구 목표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한국 문화에서 독특하게 나타나는 부러움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상향 비교와 관련된 정서 중 특히 부러움이 시샘이나 질투와 구별되는 독특한 위상을 가진 정서임을 증명하고 한국인의 정서적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 이 정서가 갖는 의미를 고찰함으로써 기존 정서 연구에서 간과된 무해한 선망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서 살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표를 염두에 두고 진행되었다. 우선 첫째, 사회비교가 중요한 한국 사회에서 부러움은 한국인의 정서 경험을 대표하는 중요 정서 중 하나임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특히 부러움의 경우, 악의적 선망으로 여겨지는 시샘이나 시기와는 구분되는 독자적인 개념으로서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만큼, 한국인의 삶과 정서 경험에 얼마나 잘 반영되어 있으며 어떠한 정서가를 가지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sup>5)</sup> 부러움은 시샘이나 질투와 같은 다른 상향 사회비교 정서와 비

교할 때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될 것이며 그에 따라 보다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될 것이라 예측하였다.

둘째, 기존 정서 연구들이 악의적 선망 개념만을 학문적 연구 대상으로 가치가 있다고 한 것과는 달리, 무해한 선망 개념인 부러움이 한국인의 정서적 삶에 유의미한 가치를 지니며 독특한 예측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최근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은 정서 경험과 삶의 만족도와와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예 : Lucas, Diener, & Suh, 1996). 이들 연구는 긍정적 정서의 풍부한 경험과 부정적 정서 경험의 상대적 부재가 주관적 안녕감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지만, 특정 개별 정서 경험이 삶의 만족도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소홀히 한 면이 있다. Burtrand Russell(1930)은 일찍이 선망을 불행의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보았다. 사회비교 정보를 중시하는 동아시아 문화권의 특성을 고려할 때 사회비교 관련 정서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한덕웅(2006)은 한국 문화에서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사회비교와 사회비교의 동기에 주목하고 있는데, 사회비교 경향이 높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낮으며 주변으로부터 사회비교를 강요받은 경험이 개인의 사회비교 동기와 동기 충족 수준과 상호작용하여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예 : 한덕웅, 1999; 한덕웅, 장은영, 2003a).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도 사회비교의 정서적 측면으로 분노를 연구하긴 했지만(예 : 한덕웅, 장은영, 2003b), 시샘이나 질투, 그리고 부러움과 같이 사회비교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정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부러움, 시샘, 질투와 같이 상향

5) Parrott & Smith (1993)에 따르면 (악의적)선망과 질투는 개념적으로 구분되는 정서이다. ‘(악의적)선망’이란 2인 행위자 상황에서 다른 한 사람 혹은 집단이 내게 걸려된 우월한 특성, 성취, 혹은 소유물을 가질 때 그것을 갖게 되기를 바라거나 상대방이 그것을 가지지 않기를 바라는 정서로서 열등감, 동경, 분개, 그리고 정서 경험에 대한 부인과 관계가 깊은 반면, ‘질투’란 3인의 행위자 관계에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른 한 명을 제 3자에게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기반한 정서로서 불안과 불신, 거부 및 상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특징지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 두 정서경험이 질적으로 다른 정서이지만 명확히 부적인 정서라는 측면에서 부러움과는 구분된다.

사회비교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정서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한다. 특히 학문적 관심에서 배제되었던 무해한 선망에 해당하는 부러움이 한국인의 주관적 안녕감과 정서적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연구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기본적으로 상향 사회비교와 그 결과로 발생하는 선망의 경험은 그 유형에 상관없이 주관적 안녕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악의적’ 혹은 ‘무해한’ 선망이라는 구분은 경험 대상에 대해 갖는 적개심의 유무를 기준으로 붙여진 것으로 선망의 대인관계적 속성에 대한 기술은 될 수 있지만 경험 당사자의 개인내적 경험을 설명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 앞서 이론화한 것처럼 무해한 선망은 잦은 상향 사회비교 상황에서 사회적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 상대에 대한 적개심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순화한다는 점에서 타인에게 ‘무해한’ 정서라고 볼 수 있으나, 그것이 당사자의 개인내적 경험에도 여전히 ‘무해할’ 것이라고는 보장할 수 없다. 사회관계적 기능의 측면에서 무해한 선망은 긍정적이지만, 개인의 정서 적응 측면에서는 상향 사회비교로 말미암은 부정적 영향을 완전히 희석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다른 선망 관련 정서와 마찬가지로 주관적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무해한 선망은, 그 이름 그대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정서로 생각되어 더 자유롭게 경험되고 표현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기시 되는 시샘이나 질투와 같은 악의적 선망에 비해 주관적 안녕감을 비롯한 정서적 삶을 예측하는 데 있어 보다 유용한 정서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마지막으로 부러움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와 조화를 중시하는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유대와 결속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는 정서임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부러움을 집단의 기대와 기준을 무시할 수 없는 한국 문화에서 불가피한 상향 사회비교가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 그 중에서도 특히 사회의 조화를 해칠 수 있는 요소를 무마하기 위해 한국 사회에서 독특하게 진화한 정서라고 보았다. 상향 사회비교 상황에서 발생하는 시샘이나 질투는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을 통해 비교대상에 대한 사회적 거리를 둠으로써 화합과 협력을 저해할 수 있는 불안요소를 만들어낸다면 무해한 선망인 부러움의 경험과 상대방에 대한 부러움의 표현은 사회비교 대상에 대한 사

회적 거리를 좁히고 친밀감을 도모하는 ‘사회적 아교’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였다. 그런 의미에서 부러움은 시샘은 정서를 경험하는 대상에 대한 해석에 있어 질적으로 구분될 것이며 특히 자신에게 더 가깝고 더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에게 느끼는 정서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 연구는 설문연구와 실험연구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설문연구에서는 각각의 상향 사회비교 관련 정서의 경험 빈도 및 지각된 사회적 바람직성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과 이들 정서들이 다른 여러 심리적 성향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는지 살펴보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와 더불어 상향 사회비교 정서 중 특히 선망에 해당하는 부러움과 시샘이 정서 경험이 어떠한 중요한 차이점을 가지는지 탐색하기 위해 대상 지각의 차이를 검증하는 실험연구를 함께 진행하였다. 한국의 부러움과 시샘은 각각 선망 연구에서 언급된 ‘무해한 선망’과 ‘악의적 선망’에 해당하는 정서일 것이라 가정하고, 이 두 정서는 상향 사회비교 상황에서 대상을 어떻게 지각하는지를 통해 분리할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구체적으로 시샘 혹은 악의적 선망은 상향 비교대상에 대해 거리를 두고 멀어지려는 ‘분리 혹은 회피’의 정서임에 비해, 부러움 혹은 무해한 선망은 상향 비교대상에 대해 거리를 좁히고 다가가려고 하는 ‘연합 혹은 접근’의 정서일 것이라 가정하였다. 따라서 부러움은 시샘에 비해 자신보다 우월하다고 인정되지만 사회적으로 가까운, 가까이 해야 하는, 혹은 가까이 하고 싶은 대상에 대해 느끼게 되는 정서일 것이라 예언하였다.

## 방 법

### 연구대상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서 심리학 관련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 88명(남자 43명, 여자 43명, 미확인 2명)이 수업 이수 요건 충족을 위해 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연령 범위는 18-28세, 평균 연령은 20.69세( $SD=1.94$ )였다.

### 측정도구

사회비교의 결과로서 경험되는 정서 중 부러움과 시샘,

질투가 어떠한 구별되는 특성을 지니며 정서적 경험을 포함하는 삶의 다양한 측면과의 관계를 살펴 보기 위해 다음의 측정도구가 설문에 포함되었다.

#### 삶의 만족도

부러움과 시샘, 질투의 정서 경험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기 위해 Diener, Emmons, Larsen, 그리고 Griffin(1985)이 개발한 삶의 만족도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 SWL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포괄적인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척도로서 '전반적으로 나의 삶은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에 가깝다,' '나는 나의 삶에 만족한다' 등의 총 5문항에 대해 7점 척도(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7=매우 동의한다)를 사용하여 응답하도록 구성되었다. Diener 등(1985)이 보고한 문항 간 내적합치도 계수는 .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83이었다.

#### 개별 정서 경험의 사회적 바람직성 지각 및 빈도

다양한 개별 정서를 경험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지, 또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자주 경험하는지를 살펴 보기 위해 Diener, Fujita 그리고 Seidlitz(1991)가 개발한 강도 및 시간 정서 설문(Intensity and Time Affect Survey : ITAS)의 정서 목록을 활용하였다. 이 설문은 정서를 다른 사람에 대한 긍정적 정서(예 : 사랑 등), 쾌락정서(예 : 기쁨 등), 자신에 대한 부정적 정서(예 : 죄책감, 등), 결별정서(예 : 슬픔 등), 위협정서(예 : 두려움 등),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 정서(예 : 분노 등)의 6가지 형태로 나누고, 각각의 정서 형태에 4개의 해당정서를 포함시켜 총 24개의 개별 정서에 대한 경험을 측정하도록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ITAS에서 확립한 24개 개별 정서에 부러움, 시샘, 질투의 3가지 사회비교 정서를 추가한 총 27개의 정서 목록을 사용하였다. 각 정서들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적합하고 가치있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되고 있는지와 관련된 개별 정서에 대한 사회적 바람직성 지각은 이러한 총 27개의 정서 목록에 대해 '사람들이 다음의 정서를 좋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까?'라고 질문한 후 7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개별 정서 경험의 빈도는 '당신은 지난 한 달 동안 아래의 감정들

을 얼마나 자주 느끼셨습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측정하였으며 7점 척도(1=전혀 느낀 적 없다, 4=기간 중 절반은 느꼈다, 7=항상 느꼈다)를 사용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다.

#### 공정성에 대한 신념

사회비교에 따르는 부정적인 정서의 경험은 평소에 자신에게 주어진 결과를 얼마나 공정한 것으로 지각하는지의 정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공정성 지각의 개인차를 살펴 보기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Dalbert (1999)가 개발한 공정한 세계에 대한 개인적 신념 척도(Personal Belief in a Just World : PBJW)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대체적으로, 내게 일어나는 일들은 그럴만한 것들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일반적으로 공정한 처우를 받고 있다' 등 전반적으로 내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이 얼마나 공정하다고 믿는지에 관한 신념을 측정하는 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6점 척도(1=강하게 동의하지 않는다, 6=강하게 동의한다)를 사용하여 응답하도록 구성되었다. Dalbert(1999)는 공정한 세계에 대한 개인적 신념(PBJW)이 공정한 세계에 대한 일반적 신념(General Belief in a Just World : GBJW)에 비해 개인의 삶의 만족도와 자존감에 대해 고유한 예측력을 지니는 것을 보여 주었다. 원 연구에서의 문항 간 내적합치도는 .82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82였다.

#### 후회/극대화 경향

선택 상황은 사회비교를 수반하며 선택 시 어떠한 결과를 추구하는지에 따라 초래되는 정서 경험과 그에 따라 삶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다. Schwartz(2000, 2002)는 선택 상황에서 획득가능한 최선의 결과를 열망하는 극대화자(maximizer)와 일정 수준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결과만을 추구하는 만족자(satisficer)를 구분하고 이러한 성향에서의 개인차를 측정하기 위해 후회/극대화 척도를 개발하였다. 극대화자는 만족자에 비해 사회비교에 대한 관심이 높고 실제 사회비교를 자주 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Study 2) 자신보다 우월한 수행자를 알게 되는 상황 사회비교 상황을 거친 후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가 감소하거나 부정 정서의 증가를 보이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Study 3). 이러한 경향은 극대화자가 낮은 수준의 삶의 만족도, 행복감, 낙관주의,



자존감과 높은 수준의 후회, 완벽주의, 우울경향을 갖는 것(Study 1)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이 연구에서는 잦은 사회비교를 추구함으로써 선택 상황에서 자신의 결과에 만족하기 어려운 극대화의 성향과 자신의 선택에 후회하는 성향이 부러움과 시샘의 정서 경험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았다.

후회 척도는 사회비교를 수반하는 선택과 그에 따르는 후회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나는 결정을 내릴 때마다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 것인지 궁금하게 여긴다,’ ‘나는 선택을 할 때마다 내가 취하지 않은 다른 대안들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됐는지에 관한 정보를 얻으려 노력한다’ 등의 5문항에 7점 척도(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7=전적으로 동의한다)를 사용하여 응답하도록 구성되었다. 원 연구의 문항 간 내적합치도는 .6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83이었다.

극대화 척도는 다양한 선택 상황에서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가능한 모든 대안을 검색하며 최상의 선택의 추구하는지의 여부를 측정하는 것으로 ‘나는 선택에 직면할 때마다 지금 당장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다른 모든 가능성들을 생각해 보려고 노력한다,’ ‘나는 인간관계를 옷과 비슷하게 다룬다. 즉, 완벽하게 맞는 것을 찾을 때까지 가능한 한 많은 옷을 입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등 13개 문항에 7점 척도(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7=전적으로 동의한다)를 사용하여 응답하도록 구성되었다. 원 연구의 문항 간 내적합치도는 .7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76이었다.

#### 정서 경험 대상에 대한 지각

이 연구의 또 다른 목적은 부러움과 시샘이 질적으로 구분되는 정서 경험임을 보이는 것이다. 정서의 인지적 평가 이론(cognitive appraisal theory)은 특정 상황에 대한 평가와 해석의 차이가 특정 정서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본다(예 : Frijda, 1986; Roseman, 1984; Smith & Ellsworth, 1985). 따라서 정서의 구분은 정서 유발 상황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알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평가 이론을 바탕으로 부러움과 시샘이 자신보다 호의적인 상황에 처한 대상이 존재함을 알게 되는 상황 사회비교 상황에서 발생하는 정서라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그 대상에 대한 추가적인 지

각의 질적인 차이에서 두 정서 경험이 구분될 것임을 가정하였다. 부러움과 시샘의 구분이 대상의 어떤 측면에 대한 지각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인지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대상이 된 참가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상황 사회비교 상황으로 부러움 혹은 시샘을 경험할 수 있는 모호한 상황으로서 ‘함께 듣는 수업에서 A가 좋은 과제점수를 받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라는 상황을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참가자들은 이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를 떠올려 보고, 이 때 부러움 혹은 시샘을 느꼈다면 자신의 정서적 반응과 행동으로 미루어 보건대 이 때 대상이 되는 동성의 친구 A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평가하였다.

대상에 대한 지각은 크게 우월성과 사회적 거리의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상황 사회비교 상황은 그 자체로 사회비교 대상이 자신보다 우월한 측면을 드러내는 상황이지만 부러움과 시샘을 느끼는 경우 상대방의 우월성을 인정하는 정도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두 정서 경험 조건 하에서 제시된 상황(A가 좋은 과제점수를 받는 것)이 내포하고 있는 A의 능력에 대한 우월성 판단에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검증하는 한편, 사교성, 도덕성과 같이 주어진 상황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다른 측면에서의 우월성 지각에서도 정서 경험 간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참가자는 ‘A는 능력적인 면에서 나보다 뛰어난 사람입니까?(능력)’, ‘A는 사교적 관계나 기술 면에서 나보다 뛰어난 사람입니까?(사교성)’, ‘A는 도덕적인 면에서 나보다 뛰어난 사람입니까?(도덕성)’의 질문에 대해 7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로 응답하였다.

이와 더불어 부러움과 시샘은 정서 경험 대상과의 사회적 거리에 대한 지각의 차이로도 구분될 것으로 보았다. 부러움이나 시샘 모두 상황 사회비교 상황에서 상대방의 우월성을 인정해야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정서지만, 부러움의 경우 사회적 거리가 가까운 대상 혹은 사회적 거리를 가깝게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대상에 대해 발생하는 것인데 비해, 시샘은 사회적 거리가 멀거나 사회적 거리를 좁혀야 할 필요를 못 느끼는 대상에게 느끼는 정서라고 가정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참가자는 7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여 ‘A는

나와 가까운 사람입니까?(친밀감), ‘A는 나와 유사한 사람입니까?(유사성)’, ‘A는 내가 친하고 싶은 사람입니까?(친애욕구)’의 세 가지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참가자들은 모두 부러움을 경험하는 상황과 시샘을 경험하는 상황을 한 번씩 가정한 상태에서 각각의 상황 속에서의 대상 A에 대해 평정하였는데, 절반은 ‘당신이 이 상황에서 A에 대해 ‘부러움’을 느꼈다면’ A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먼저 평가를 하였고, 나머지 절반은 ‘당신이 이 상황에서 A에 대해 ‘시샘이 난다’고 느꼈다면’ A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먼저 평가하도록 하여 순서를 상대균형화 하였으며, 참가자들은 이 두 가지 순서 조건에 무선했던 되었다.

절차

참가자들은 컴퓨터실로 안내되어 연구의 목적 및 참가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연구참가동의서에 서명을 한 후 설문에 참가하였다. 참가자에게는 개인 컴퓨터가 하나씩 할당되었으며, 설문 작성 방법에 따라 각자의 컴퓨터에 준비된 온라인 설문을 개별적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설문은 삶의 만족도 척도, 개별 정서의 경험 빈도 평정, 정서 경험 대상에 대한 지각 평정(부러움과 시샘 경험 상황 순서의 상대균형화), 공정성에 대한 신념, 후회/극대화 경향, 개별 정서의 사회적 바람직성 지각 평정의 순서로 진행되었고, 정서 경험 대상에 대한 지각 부분은 두 순서 조건 중 할당된 조건에 일치하는 부러움과 시샘 상황의 순서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 성별, 나이 등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제공하고 설문을 마친 후, 연구 내용에 대한 후속설명까지 끝나면 세션을 종료하였다.

결 과

개별 정서 경험의 사회적 바람직성 지각 및 빈도

표 1은 27개 개별 정서의 경험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적합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지는지 평정한 결과와 과거 1개월 동안 개별 정서들의 경험 빈도를 보고한 결과이다. 부러움은 시샘이나 질투에 비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정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고 따라서 정서 경험에 대한 사회적 바람직성 인식 여부를 묻는 질

표 1. 27개 개별 정서 경험의 바람직성 지각 점수 및 빈도 순위

정서	바람직성 지각 평균	정서	경험빈도 평균
1 사랑	6.47	1 애정	4.66
2 행복감	6.34	2 걱정	4.56
3 기쁨	6.20	3 기쁨	4.48
4 애정	6.05	4 행복감	4.34
5 만족감	5.98	5 사랑	4.34
6 상냥함	5.94	6 다정함	4.27
7 다정함	5.89	7 외로움	4.07
8 자랑스러움	5.85	8 만족감	4.05
9 슬픔	3.45	9 상냥함	3.99
10 <b>부러움</b>	<b>3.40</b>	10 불안감	3.97
11 걱정	3.16	11 짜증	3.94
12 외로움	2.97	12 후회	3.91
13 죄책감	2.66	13 우울함	3.85
14 후회	2.57	14 <b>부러움</b>	<b>3.82</b>
15 <b>질투</b>	<b>2.52</b>	15 자랑스러움	3.67
16 <b>시샘</b>	<b>2.40</b>	16 초조함	3.43
17 불안감	2.34	17 슬픔	3.27
18 화(남)	2.30	18 화(남)	3.26
19 우울함	2.24	19 <b>시샘</b>	<b>3.02</b>
20 초조함	2.23	20 두려움	2.97
21 창피함	2.17	21 <b>질투</b>	<b>2.94</b>
22 두려움	2.10	22 창피함	2.70
23 분노	2.07	23 죄책감	2.68
24 짜증	1.93	24 분노	2.56
25 수치심	1.92	25 수치심	2.47
26 불행함	1.66	26 불행함	2.40
27 역겨움	1.32	27 역겨움	2.07

문에 상대적으로 호의적인 답변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사회적 바람직성 지각 평정의 결과는 이를 뒷받침한다. 부러움( $M=3.40, SD=1.43$ )은 긍정적인 정서만큼 호의적으로 인식되지는 않았지만 부정적 정서 중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정서경험으로 인식된 슬픔( $M=3.45, SD=1.49$ ) 다음으로 호의적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비해 질투( $M=2.52, SD=1.55$ )와 시샘( $M=2.40, SD=1.36$ )은 호의적으로 인식되지 않은 정서임을 알 수 있었으며 부러움과 나머지 두 정서 간 바람직성 지각의 차이는 유의미하였다 (부러움과 질투 :  $F(1,87)=22.07, p<.001, \eta_p^2=.20$ ; 부러움과 시샘 :  $F(1,87)=29.67, p<.001, \eta_p^2=.25$ ).

정서 경험에 대한 사회적 규범의 지각에 있어 부러움이 시샘이나 질투에 비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면 실제 경험의 빈도에 있어서도 부러움은 더 자주 경험되는 것으로 보고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개별 정서의

경험 빈도 결과를 살펴보면 걱정( $M=4.56, SD=1.36$ )과 외로움( $M=4.07, SD=1.60$ )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정적 정서들은 경험 빈도에 있어 하위 순위를, 대부분의 긍정적 정서들은 상위 순위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중 사회비교 관련 정서들인 부러움과 시샘, 질투의 경험 빈도의 순위를 비교해 보면 부러움이 경험의 빈도에 있어서도 시샘과 질투와 구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러움( $M=3.82, SD=1.54$ )은 걱정, 외로움, 불안감( $M=3.97, SD=1.59$ ), 짜증( $M=3.94, SD=1.32$ ), 후회( $M=3.91, SD=1.58$ ), 우울함( $M=3.85, SD=1.54$ )과 같이 자주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 목록의 상위권에 속하는 반면, 시샘( $M=3.02, SD=1.45$ )과 질투( $M=2.94, SD=1.51$ )는 상대적으로 낮은 빈도로 보고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부러움과 나머지 두 정서간 경험 빈도 보고 차이는 유의미하였다(부러움과 시샘:  $F(1, 87)=37.75, p<.001, \eta_p^2=.30$ ; 부러움과 질투:  $F(1, 87)=24.67, p<.001, \eta_p^2=.22$ ). 따라서, 부러움은 시샘이나 질투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되는 정서 경험이며, 일상적으로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는 정서임을 알 수 있다.

측정치와의 상관

부러움이 시샘과 질투와 같은 유사 사회비교 관련 정서에 비해 삶의 만족도 및 주관적 안녕감에 대해 갖는 고유한 예측력이 있는지를 탐색하고 이를 통해 부러움이 시샘이나 질투와는 분명하게 구분되는 정서인지 확인하기 위해 세 정서와 여러 심리적 특성과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부러움, 시샘, 질투 경험과 그 외 일반 정서 경험과의 관계를 살펴 보기 위해 ITAS 문항 중 정적 정서 8가지와 부정 정서 16가지의 평균을 구한 후 각각의 정서와의 상관을 구하였다. 그 결과, 부러움은 정적 정서와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부정 정서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가짐을 알 수 있었다(정적정서:  $r=-.33$ ; 부정정서:  $r=.50, p<.001$ ). 즉, 부러움을 많이 느낄수록 정적 정서는 더 적게 부정 정서는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샘과 질투의 경우 부러움과 마찬가지로 부정 정서와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가졌으나(시샘:  $r=.55$ , 질투:  $r=.47, p<.001$ ) 정적 정서와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삶의 만족도(SWLS)에 있어서도 시샘과 질투는 유의미

표 2. 부러움, 시샘, 질투의 세 정서와 다른 심리적 특성들과의 상관 ( $N=88$ )

	SWLS	정적 정서	부적 정서	후회	극대화	PBJW
부러움	-.36**	-.33**	.50**	.29**	.22*	-.26*
시샘	-.17	-.13	.55**	.16	.15	-.13
질투	-.08	-.04	.47**	.08	.01	-.16

\* $p<.05$ , \*\* $p<.01$

한 상관을 갖지 않은 것과는 달리 부러움은 유의한 부적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r=-.36, p<.01$ ). 즉, 부러움을 많이 경험하는 사람일수록 낮은 삶의 만족도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샘과 질투는 이러한 지표들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부러움과는 구별되는 정서임을 보여주었다. 더 나아가 위계적 회귀 분석을 통해 불행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부정 정서들(예: 후회, 외로움, 불안감, 우울함, 짜증, 부러움)의 불행감에 대한 설명력을 살펴보았을 때, 다른 정서들의 설명력을 제외하고도 부러움이 여전히 불행감을 유의미하게 설명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Delta R^2=.04, p<.03$ ).

주요 측정지표들과의 상관분석은 세 가지 사회비교 관련 정서 중 특히 부러움이 후회와 극대화 경향과 정적 상관을, 공정한 사회에 대한 신념(PBJW)과는 부적 상관을 가짐을 보여준다(표 2). 즉 부러움의 정서경험은 선택 상황에서 일정 수준의 기준에 만족하기 보다는 가능한 한 많은 대안을 모두 고려해서 최상의 선택을 내려야 한다고 믿고 많은 대안을 탐색하는 경향(극대화)과 그런 과정을 통해 결정을 내렸으나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대안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함으로써 자신이 선택한 대안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후회하는 경향(후회), 그리고 내게 주어진 결과와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공정하지 않다고 믿는 경향(PBJW)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이론화한 것처럼 부러움이 질투나 시샘에 비해 대인관계적 측면에서 사회적 조화를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실제로 빈번하게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는 정서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당사자들의 정서적 삶의 질이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부정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시샘과 질투가 부정정서의 경험을 제외하고는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심리적 지표들과 어떠한 상관관계도 갖지 않는 것에 비해 부러움은 이들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임으로써 잠재적으로 한국인의 정서적 삶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데 있어 유용한 정서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 대상에 대한 지각

부러움과 시샘은 공통적으로 자신이 가지지 못한 긍정적인 결과를 갖게 된 사람에 대해 가지게 되는 정서이지만, 질적으로 구분되는 정서 경험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무엇보다 잠재적으로 동일한 상황이 질적으로 다른 정서를 일으키는 데에는 사회비교 대상에 대한 사회적 지각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였다. 즉, 사회비교를 촉발시킨 대상이 어떤 특성을 지닌 사람으로 인식되는지 혹은 주어진 상황을 어떠한 방향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는지에 따라 경험 정서는 부러움 혹은 시샘으로 달라질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두 정서 경험을 구분하는 데 있어 중요한 대상 지각의 차원으로 우월성과 사회적 거리에 주목했다. 부러움이 나와 우월한 대상의 사회적 거리가 가깝거나 혹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현실적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자신을 대상과 동일시 하려고 함으로써 비롯되는 정서라면, 시샘은 나보다 우월한 상대와 가깝지 않거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과 대상을 구분 지으려 함으로써 야기되는 정서라고 이론화하였다. 부러움이나 시샘은 공통적으로 다른 누군가가 자신이 가지지 못한 긍정적인 결과를 갖고 있다는 지각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사회

비교 대상의 우월성이 상황에 내포되어 있지만, 상대방의 우월성을 인정하고 지각하는 정도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일 것으로 생각되었다. 구체적으로 부러움의 정서 경험은 상대방의 우월성을 수용하거나 그럴만한 상황적 요구가 있는 상황에서 비롯되는 데 비해 시샘의 정서 경험은 상대방의 우월성을 인정할 수 없거나 평가 절하하고 싶은 상황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러움을 경험할 때에는 시샘을 경험할 때보다 상대방에 대해서 더 뛰어난 사람으로 평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보다 직접적으로 정서 경험 대상에 대한 사회적 거리 지각에서 부각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시샘이 자신과 유사하거나 가깝지 않고, 가까워져야 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는 대상에 대해 경험하게 되는 ‘분리’의 정서라면, 부러움은 자신과 유사하거나 가깝게 여겨지거나 가까워질 필요성이 있는 대상에 대해 경험하게 되는 ‘연합’의 정서로서, 이러한 차이는 대상에 대한 사회적 지각 평가에서 드러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 우월성

정서 경험 대상에 대한 우월성 지각 여부는 나에 비해 A가 얼마나 능력적으로 뛰어난지(능력), 사교적 관계나 기술 면에서 뛰어난지(사교성), 그리고 도덕적인 면에서 뛰어난지(도덕성)의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모든 참가자가 부러움과 시샘의 상황에서 대상에 대한 지각을 보고했으므로 부러움과 시샘의 2가지 정서 조건에 따른 우월성 지각 차이를 피험자내 반복측정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부러움과 시샘상황의 제시 순서조건의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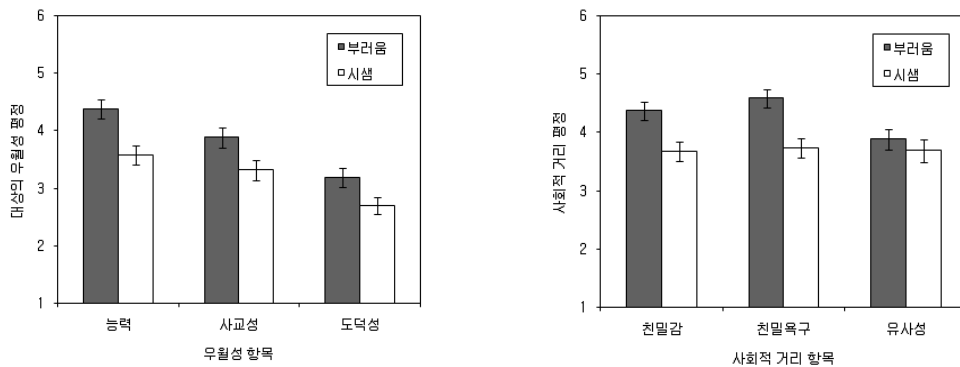


그림 1. 부러움과 시샘의 정서 경험 대상에 대한 우월성 및 사회적 거리 지각의 차이

는 유의미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서 요인은 이후의 분석에서 고려하지 않았다.

분석 결과 부러움을 느끼게 된 대상은 시샘을 느끼게 된 대상에 비해 능력의 우월성은 물론 모든 우월성의 지표에서 훨씬 뛰어난 사람으로 인식함을 보여주었다(그림 1). 즉, 함께 듣는 수업에서 좋은 과제점수를 받은 동성의 친구 A에 대해 시샘보다는 부러움을 느꼈을 때 참가자들은 A를 능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인식(부러움 :  $M=4.39$ ,  $SD=1.62$ ; 시샘 :  $M=3.58$ ,  $SD=1.52$ ;  $F(1,87)=15.89$ ,  $p<.001$ ,  $\eta_p^2=.15$ ), 사교성(부러움 :  $M=3.89$ ,  $SD=1.64$ ; 시샘 :  $M=3.32$ ,  $SD=1.73$ ;  $F(1,87)=14.08$ ,  $p<.001$ ,  $\eta_p^2=.14$ ), 도덕성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뛰어난 사람(부러움 :  $M=3.19$ ,  $SD=1.55$ ; 시샘 :  $M=2.70$ ,  $SD=1.36$ ;  $F(1,87)=8.71$ ,  $p<.01$ ,  $\eta_p^2=.09$ )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러움의 경험은 시샘의 경험에 비해 자신이 가지지 못한 긍정적인 결과를 맞이한 사람에 대해 상대적인 우월성을 인정하는 상황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사회적 거리

우월성 평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부러움은 시샘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 느끼는 정서임을 알 수 있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부러움과 시샘 두 정서의 차이는 상향 사회 비교의 기준이 된 대상에 대해 느끼는 사회적 거리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시샘이 상향 비교 대상에 대해 사회적 거리를 두는 분리의 정서라면 부러움은 사회적 거리를 좁히려는 연합의 정서라고 보았기 때문에 시샘에 비해 부러움을 느낄 경우 정서 경험 대상을 더 가까우며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으로 여길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를 위해 부러움과 시샘의 정서 경험 상황에서 대상이 자신과 얼마나 가깝다고 느끼는지(친밀감), 그 대상과 얼마나 가까워지고 싶은지(친밀욕구) 그리고 얼마나 유사하다고 생각하는지(유사성)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응답을 각각 2(정서 : 부러움/시샘, 참가자내변인)×2(순서 : 부러움-시샘/시샘-부러움, 참가자간변인) 혼합설계 변량분석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기대했던 부러움과 시샘 두 정서 조건의 주효과는 친밀성과 친밀욕구 두 지표에서 유의하였다(그림 1). 시샘을 느꼈을 때에 비해 부러움을 느꼈을 때 참가자들은 대상이

자신과 더 가까운 사람이라고 인식하였고(부러움 :  $M=4.38$ ,  $SD=1.40$ ; 시샘 :  $M=3.68$ ,  $SD=1.55$ ;  $F(1, 86)=12.81$ ,  $p=.001$ ,  $\eta_p^2=.13$ ), 그 대상과 가까워지고 싶다고 보고하였다(부러움 :  $M=4.59$ ,  $SD=1.46$ ; 시샘 :  $M=3.74$ ,  $SD=1.57$ ;  $F(1, 86)=17.53$ ,  $p<.001$ ,  $\eta_p^2=.17$ ). 이에 비해 유사성 지각에서는 두 조건 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부러움 :  $M=3.89$ ,  $SD=1.59$ ; 시샘 :  $M=3.69$ ,  $SD=1.80$ ;  $F(1, 86)<1$ ,  $p=n.s.$ ,  $\eta_p^2=.01$ ).

우월성 평가와는 달리 사회적 거리 평가에서는 친밀성( $F(1, 86)=11.19$ ,  $p=.001$ ,  $\eta_p^2=.12$ ), 친밀욕구( $F(1, 86)=8.11$ ,  $p=.006$ ,  $\eta_p^2=.09$ ), 유사성( $F(1,86)=8.36$ ,  $p<.01$ ,  $\eta_p^2=.09$ )의 세 지표 모두에서 정서와 순서의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앞서 발견된 정서 조건의 주효과 패턴이 부러움 상황에서의 대상 평가가 시샘 상황에서의 대상 평가에 선행된 경우에서 특히 두드러짐을 보여주었다. 즉, 정서 경험 대상에 대한 사회적 거리 판단에 있어 부러움에 대해 먼저 판단한 경우 시샘에 대해서는 대조적인 지각이 형성되었으며 사회적 거리를 멀게 지각하는 경향이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 논 의

한국어 정서단어 목록 구성을 시도한 기존 연구들은 사회비교와 관련된 부러움, 시기, 시샘, 질투와 같은 정서들이 한국인의 정서적 삶에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사회비교, 그 중에서도 상향 사회비교에 민감한 동양문화권의 경우, 이러한 사회비교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서와 여기서 파생될 수 있는 효과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서 출발한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문화와 한국인의 정서적 삶에서 사회비교와 관련된 정서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 중에서도 특히 무해한 선망인 부러움이 가지는 의미를 조명해 준다. 앞서 제시한 세 가지의 연구 목표와 관련하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별 정서에 대한 사회적 바람직성 지각 및 경험 빈도 보고 결과는 부정적인 정서로 인식되는 시샘이나 질투에 비해 부러움의 경험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정서와 부정적인 정서의 경계에 위치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부

러움은 시샘이나 질투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정서 경험으로 여겨졌으며, 경험 빈도에서도 시샘이나 질투에 비해 더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악의적 선망이 열등감, 분개와 더불어 정서 경험을 금기시하고 부인하려는 경향과 연관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Parrott & Smith, 1999)와는 대비되는 것으로서, 부러움을 무해한 선망으로 개념화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준다.

둘째, 삶의 만족도 및 주관적 안녕감과 관련된 심리적 특성들과의 상관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부러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은 높은 수준의 후회와 극대화 성향을 보였으며,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긍정하지 않다고 믿는 경향을 보였다. 무엇보다도 부러움을 많이 느끼는 것은 일반적으로 낮은 빈도의 정적정서 경험과 높은 빈도의 부정적정서 경험과 연관돼 있었으며 삶의 만족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러움이 시샘이나 질투에 비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되며 빈번하게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는 정서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들의 정서적 삶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이지 않음을 보여준다.

한편, 부러움은 주관적 안녕감과 정서적 삶과 관련된 지표들과 의미 있는 상관을 보여준 데에 비해 시샘과 질투는 대부분의 지표에서 그러한 상관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이들 정서가 부러움과는 구별되는 정서임을 보여주었다. 시샘이나 질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거나 표현해서는 안 되는 정서로 여겨지고 경험 빈도 역시 상당히 낮은 것과는 달리, 부러움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정서로 여겨지기 때문에 경험 빈도 역시 상대적으로 높았고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과 유의한 상관을 보임으로써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 및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하는 데 있어 부러움이 개별 정서로서 매우 유용한 예측 변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해 주었다.

마지막으로 상향 사회비교 대상에 대한 지각과 해석에 대한 비교는 무해한 선망인 부러움과 악의적 선망인 시샘이 질적으로 구분되는 정서임을 보여 주었다. 사회비교 대상에 대한 우월성 지각의 측면에서 부러움을 느끼는 경우에는 시샘을 느끼는 경우에 비해 대상을 모든 측면에서 더 우월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악의적 선망의 경우 상향 사회비교 대상이 바람직한 속성을

가지는 것이 ‘불공평하다’, ‘받을 자격이 없다’는 인식과 맞물려 적개심을 유발하는 것과는 대비된다. 사회적 거리의 측면에서는 부러움을 느끼는 대상이 시샘을 느끼는 대상에 비해 내가 좀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 대상이거나 더 가까워지고 싶다고 느끼는 대상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무해한 선망인 부러움이 ‘연합’의 정서로서 한국 문화에서 불가피한 상향 사회비교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고 사회적 유대와 결속을 유지하는 ‘사회적 야교’의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는 가설을 부분적으로 지지해 준다.

이 연구는 부러움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 문화에 독특하게 나타나는 정서를 조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서구권에서 이루어진 기존의 정서 연구, 그 중에서도 선망의 연구 및 논의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 특유의 정서인 부러움을 무해한 선망이라는 개념의 틀에 위치시킬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부러움을 일반 정서 연구에 적합한 연구 대상으로 자리매김하는 동시에 기존의 선망 연구에서 간과되었던 무해한 선망의 독립된 존재를 재확인하고 그 사회적 기능과 특정 문화에서의 중요성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들 수 있을 것이다.

한국 문화에서 악의적 선망과 무해한 선망에 해당하는 정서 용어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이는 특히 다른 문화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무해한 선망이 한국 문화에서 독특하게 구분되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박인조와 민경환(2005)은 한국어 정서 목록 작성 연구에서 언어에 의한 정서 표현은 타인에게 정서체험을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한국 사회에서 부러움은 특정 정서 유발 상황에서 ‘느끼는’ 정서일 뿐 아니라 많은 경우 상향 사회비교 대상에게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정서라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커뮤니케이션의 측면에서 볼 때 상향 사회비교 대상에게 “부럽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친밀감을 표시함으로써 상대방의 호감을 유도하고 사회적 거리를 좁히려는 적극적이며 전략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일종으로 이해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와 유사하게 사회적 관계가 중시되는 일본의 경우에도, 한국의 경우처럼 악의적 선망과 무해한 선망이 분리되어 존재하지는 않지만, 다소 긍정적인 의미의 ‘선망(羨望)’에 해당

하는 “*せんぼう*(senbou)”가 존재하며, ‘부럽다’에 해당하는 “*うらや(羨)ましい*(urayamashi)”를 동일한 용법으로 일상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은 흥미롭다. 부러움이 한국 사회에서 가지는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의 기능은 그 자체로도 흥미롭지만, 특히 무해한 선망이 사회적 조화가 중시되는 문화에서 상향 사회비교가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희석시키고 사회적 유대를 유지하는 사회적 기능을 위해서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가능성은 추후 연구를 통해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부러움이 주관적 안녕감과 부적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결과는 부러움의 기능과 영향을 이해하는 데 있어 대인관계적(*interpersonal*) 측면과 개인내적(*intrapersonal*) 측면을 분리해야 함을 시사한다. ‘무해한 선망’이란 개념은 사회적 관계를 조율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는 ‘무해’하도록 진화된 정서이지만 개인내적으로는 여전히 악의적 선망을 포함한 다른 사회비교 정서와 마찬가지로 ‘유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부러움이 주로 쾌-불쾌 혹은 긍정적 정서-부정적 정서의 경계에 위치하며 양가적 인(*ambivalent*) 속성을 가지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빈번한 상향 사회비교 상황에 노출된 동시에 사회적 조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매우 상충적인 문화적 상황의 압력을 받는 동양 문화권의 특성을 고려할 때, 무해한 선망은 사회적 측면에서는 매우 전략적이며 적응적인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지만, 개인의 측면에서는 상향 사회비교의 부작용을 완전히 여과시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러한 부정적 정서 경험에 노출되도록 함으로써 정서적 취약점을 발생시키는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러움의 사회적 기능을 이해하는 것과 동시에 부러움의 경험이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장단기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부러움은 독립된 무해한 선망 개념으로 존재하는 몇 안 되는 정서로서 독특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무해한 선망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최근 Van de Ven, Zeelendberg와 Pieters(*in press*)는 네덜란드어에 악의적 선망과 함께 무해한 선망의 정서 개념이 별도로 존재함에 주목하고 이 정서가 내용적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특히 선망의 정서 경험이 상향 사회비교에서 확인된 불균등 상태를 균등

화(*leveling*)하려는 동기와 연합되어 있음에 주목했는데, 이들에 따르면 무해한 선망은 자신의 위상을 개선함으로써 상향 균등화(*leveling up, moving-up*)를 추구하려는 동기를, 악의적 선망은 상향 비교대상의 위상을 끌어내림으로써 하향 균등화(*leveling down, pulling-down*)를 추구하려는 동기를 유발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이 연구에서 시샘이 혹은 악의적 선망이 ‘분리’ 혹은 ‘회피’의 정서인 반면, 부러움 혹은 무해한 선망의 경험을 ‘연합’ 혹은 ‘접근’의 정서라고 이론화한 것과도 연결이 되며, 특히 부러움을 느낄 때 그 사회비교 대상에 대해 우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대상을 가깝거나 가까워지고 싶은 대상으로 인지하는 경향과도 일치한다. 이를 바탕으로 추후 부러움 혹은 무해한 선망이 가지는 사회적 기능과 연결하여 어떠한 동기가 작용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서울 상위권 대학의 일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함께 수업 듣는 친구가 좋은 점수를 받았다’라는 한정된 상황을 바탕으로 연구된 것이라는 점에서 제한점을 갖는다. 한국의 상위권 대학이 제공하는 경쟁적이며 사회비교가 첨예한 교육환경과 이런 교육환경에 익숙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사회비교 정서의 중요성이나 정서들 간의 차이가 필요 이상으로 과장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경쟁적이고 사회비교가 잦은 환경과 상황이야말로 이러한 정서 경험들이 의미가 중요해지는 맥락이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부러움과 시샘, 그리고 질투가 가지는 일반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들이 좀 더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도 일반화 가능한 것인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언어에 의한 정서 표현은 정서체험을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정서 자체나 정서 체험의 구조를 정확하게 기술해 주지는 못할 수 있다고 지적되고 있는데(박인조, 민경환, 2005), 이것은 이 연구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 연구는 많은 경우 부러움과 시샘, 질투라는 용어에 의존하여 정서 경험을 분석했다. 따라서 실제로 부러움과 시샘을 경험했던 사례를 수집하고 이 두 정서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이 무엇인지를 확인함으로써 이 두 정

서 경험을 정의할 수 있는 상황적 특성은 무엇인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어느 방향으로든 해석될 수 있는 모호한 상황을 제시하고 부러움이나 시샘을 느꼈다고 가정하게 한 후, 각각의 상황에서 대상에 대한 지각을 의식적인 수준에서 보고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드러난 지각의 차이는 부러움과 시샘에 대해 사람들이 그렇다고 ‘민고 있는’ 지각의 차이를 반영할 뿐, 실제 정서 경험에 수반되는 차이를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대상의 우월성이나 사회적 거리를 조작하여 이를 통해 시샘이나 부러움을 야기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시샘의 경험을 부러움의 경험으로 혹은 부러움의 경험을 시샘의 경험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지점이 있는지를 연구함으로써 이들 정서를 개념적으로 구분하려는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부러움은 한국 문화에 독특하게 반영된 정서로서 한국인의 정서적 삶과 그 특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정서일 뿐 아니라, 기존의 정서 연구 그 중에서도 선망 연구에서 누락되었던 무해한 선망을 새로 조망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정서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부러움이 한국 사회에서 유효한 정서로 자리매김한 이유와 그 특성을 연구함으로써 무해한 선망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러한 선망이 존재하는 이유와 그 사회적 기능을 이해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박인조, 민경환 (2005). 한국어 감정단어의 목록 작성과 차원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 109-129.
- 서상규 (1998). 현대 한국어의 어휘 빈도.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 안신호, 이승혜, 권오식 (1993). 정서의 구조: 한국어 정서단어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7, 107-123.
- 안신호, 이승혜, 권오식 (1994). 한국어 정서단어의 분석: 정서단어의 유사성 구조와 정서체험의 구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8, 150-175.
- 장은영, 한덕웅 (1999). 비교 대상의 선택에서 환류유형, 비교속성 및 통제력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 201-217.
- 장은영, 한덕웅 (2004a). 사회비교의 목표, 대상 및 결과가 비교 대상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8, 65-89.
- 장은영, 한덕웅 (2004b). 사회비교의 목표, 대상 및 결과에 따른 자기 정서의 경험.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8, 127-153.
- 표준국어대사전 (2009). 2009년 3월 25일 출력.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국립국어원.
- 한덕웅 (1999). 사회비교의 목표와 성공실패 경험에 따른 비교 대상의 선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 311-329.
- 한덕웅 (2006). 한국 문화에서 주관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심리 요인들.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2, 45-79.
- 한덕웅, 강혜자 (2000). 한국어 정서 용어들의 적절성과 경험 빈도.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9, 63-99.
- 한덕웅, 장은영 (2000). 사회비교의 목표, 대상 및 성공실패에 따른 자기 정서의 경험.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 109-123.
- 한덕웅, 장은영 (2003). 사회비교가 분노경험, 주관안녕 및 건강지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 85-112.
- Ashwin, M. (2005). Cronos and his children envy and reparation. Retrieved from <http://human-nature.com/ashwin/index.html>.
- Beckman, S. R., Formby, J. P., Smith, W. J., & Zheng, B. (2002). Envy, malice and Pareto efficiency: An experimental examination. *Social Choice and Welfare*, 19, 349-367.
- Chung, T., & Mallery, P. (1999). Social comparison, individualism-collectivism, and Self-Esteem i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Current Psychology*, 18, 340-352.
- Dalbert, C. (1999). The world is more just for me than generally: About the personal belief in a just world Scale's validity. *Social Justice Research*, 12, 79-98.
-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 Personality Assessment*, 49, 71-75.
- Diener, E., Fujita, E., & Seidlitz, L. (1991). *Manual for the intensity and time affect survey (ITAS)*.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 Duffy, M. K., & Shaw, J. D. (2000). The Salieri syndrome : Consequences of envy in groups. *Small Group Research*, 31, 3-23.
- Foster, G. M. (1972). The anatomy of envy : A study in symbolic behavior. *Current Anthropology*, 13, 165-202.
- Frijda, N. H. (1986). *The emotions*. Cambridge, England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ibbons, F. X., & Buunk, B. P. (1999). Individual differences in social comparison : Development of a scale of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 129-142.
- Heine, S. J., Lehman, D. R., Markus, H. R., & Kitayama, S. (1999). Is there a universal need for positive self-regard? *Psychological Review*, 106, 766-794.
- Hoelzl, E., & Loewenstein, G. (2005). Wearing out your shoes to prevent someone else from stepping into them : Anticipated regret and social takeover in sequential decision.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98, 15-27.
- Kant, I. (1797/1996). *The metaphysics of morals*. Cambridge, England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eltner, D., & Buswell, B. N. (1997). Embarrassment : Its distinct form and appeasement functions. *Psychological Bulletin*, 122, 250-270.
- Kitayama, S., Mesquita, B., & Karasawa, M. (2000). Cultural affordances and emotional experience : Socially engaging and disengaging emotions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1, 890-903.
- Lazarus, R. S. (1991). *Emotion and adaptation*.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 Lucas, R. E., Diener, E., & Suh, E. (1996). Discriminant validity of well-being measur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616-628.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Parks, C. D., Rumble, A. C., & Posey, D. C. (2002). The effects of envy on reciprocation in a social dilemma.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8, 509-520.
- Parrott, W. G. (1991). The emotional experiences of envy and jealousy. In P. Salovey(Ed.), *The psychology of jealousy and envy*(pp.3-30). New York : Guilford.
- Parrott, W. G., & Smith, R. H. (1993). Distinguishing the experiences of envy and jealous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906-920.
- Rawls, J. (1971/1999).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MA : Harvard University Press.
- Roseman, I. J. (1984). Cognitive determinants of emotions : A structural theory. In P. Shaver(Ed.),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 Emotions, relationships, and health*(pp.11-36). Beverly Hills, CA : Sage.
- Russell, B. (1930/1958). *The conquest of happiness*. New York : Liveright.
- Schimmack, U., & Diener, E. (1997). Affect intensity : Separating intensity and frequency in repeated measured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1313-1329.
- Schoeck, H. (1969/1987). *Envy : A theory of social behavior*. New York : Liberty Fund Inc.
- Schwartz, B. (2000). Self-determination : The tyranny of freedom. *American Psychologist*, 55, 79-88.
- Schwartz, B. (2002). Maximizing versus satisficing : Happiness is a matter of choi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 1178-1197.
- Silver, M., & Sabini, J. (1978). The social construction of envy. *Journal for the Theory of Social Behaviour*, 8, 313-332.
- Singelis, T. M. (1994). The measurement of independent

- and interdependent self-construal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0, 580-591.
- Smith, C. A., & Ellsworth, P. C. (1985). Patterns of cognitive appraisal in emo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 813-838.
- Smith, R. H., & Kim, S. H. (2007). Comprehending envy. *Psychological Bulletin*, 133, 46-64.
- Smith, R. H., Kim, S. H., & Parrott, W. G. (1988). Envy and jealousy : Semantic problems and experiential distinction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3, 401-409.
- Smith, R. H., Parrott, W. G., Diener, E. F., Hoyle, R. H., & Kim, S. H. (1999). Dispositional env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5, 1007-1020.
- Triandis, H. C. (1989). The self and social behavior in differing cultural contexts. *Psychological Review*, 96, 506-520.
- Van de Ven, N., Zeelenberg, M., & Pieters, R. (in press). Leveling up and down : The experience of malicious and benign envy. *Emotion*.
- Vecchio, R. (2005). Explorations in employee envy : Feeling envious and feeling envied. *Cognition and Emotion*, 19, 69-81.
- White, K., & Lehman, D. R. (2005). Culture and social comparison seeking : The role of self-motiv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1, 232-242.

## ***Buroum* : An Analysis of Benign Envy in Korea**

**Oona Cha**

**Chung-Ang University**

This research examined the role of emotions associated with upward social comparison processes in Korean's lives. Three emotions, i.e., *buroum* (benign envy), *sisem* (malicious envy), and *jiltu* (jealousy) were compared. Especially, this research focuses on *buroum*, an equivalent to "benign envy," and tries to demonstrate its distinct characteristics and its unique contribution to subjective well-being and psychological lives of Koreans. Compared to *sisem* or *jiltu*, *buroum* was found to be experienced more frequently and was perceived as more socially desirable; however, it was still negatively associated with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that were relevant to subjective well-being. Furthermore, examination on the perception of the comparison target indicated that *buroum*, compared to *sisem*, was directed toward someone who was close to them or whom they desired to be close. It suggests that *buroum* might serve a social function of managing relational harmony and strengthening social ties in interdependent culture. This research suggests to bring benign envy back into focus and emphasizes the necessity to understand the role and meanings of *buroum* in Koreans' affective experiences.

**Keywords: emotion; buroum; envy; social comparison; culture; subjective well-being**

1차원고 접수일 : 2009년 4월 8일  
수정원고 접수일 : 2009년 5월 22일  
게재 확정일 : 2009년 5월 22일